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9일 예술의전당에서 '제8회 세일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제8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개최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고문·세일이엔에스(주)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8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올해 세일 한국가곡의 밤은 최성한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지휘하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김은주·박현주, 메조 소프라노 김지선, 바리톤 김진주·김동원, 테너 김재형 등이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한 제8회 세일 한국가곡콩쿠르 성악부문 수상자인 소프라노 김혜수·황신애, 테너 손지훈을 비롯해 작곡부문 수상곡인 '리일락 꽃' 등이 초연됐다.

이날 행사에서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은 한국 음악계의 산증인으로 한국가곡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하고 한국가곡의 대중화에 노력한 작곡가 신귀복 선생에게 '제8회 세일 한국가곡상'을 수여했다.

가곡 '얼굴'로 유명한 신귀복 선생은 경희대 음대 작곡과와 동대학원을 나왔으며, 중·고등학교 교사와 한국관악협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와 전국교교고적대 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한국서정가곡작곡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정승일 회장은 음악예술의 발전과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8년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009년부터는 성악가 발굴과 함께 잊혀져가는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작곡가 신귀복 선생



정승일 이사장